펀드 광풍

‘1가구 1펀드’시대

이달중순 1,300만 계좌에 102조473억 유입

지역민들도 꾸준히 가입 … 정기예금 앞질러

펀드열풍이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올들어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한 펀드 가입 열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미 1가구 1펀드 시대가 열린데 이어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탁액이 은행의 정기예금을 앞질렀다.

주식형 펀드 수탁액이 100조원을 넘어섰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일명 ‘인사이트 펀드’에는 판매 20일 만에 4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 펀드 쏠림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주식 편입비율이 70%를 넘는 주식형 수익증권(펀드) 잔고는 1천300만 계좌, 102조4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말 대비 56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한국인 4명당 1명꼴로 1개 계좌를 보유, ‘1가구 1펀드 시대’를 연 셈이다.

특히 지난 9일과 12일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틈을 타 이틀사이 1조원이 넘는 자금이 새로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기도 했다.

또 10월말 기준으로는 자산운용사의 수신잔액이 총 282조5천569억원으로 은행권의 정기예금 잔액(269조8천235억원)을 12조 이상 추월해 1999년 말 ‘바이코리아’ 펀드열풍이 후 7년 반 만에 펀드가 정기예금을 역전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펀드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광주은행의 경우 10월말 현재 총자산 18조3천388억원 가운데 수익증권(펀드) 자산은 1조8천734억원으로 펀드 판매가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지역 대형 증권사 영업점에도 주식형 펀드가 1주일 사이 많게는 20~30억원씩 유입되고 있다.

삼성증권 광주지점 관계자는 “코스피지수 2,000선을 기준으로 2,000선을 넘으면 펀드 유입이 주춤하지만 1,900선 아래에서는 유입액이 크게 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사원 김영선(41·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코스피지수가 장중에 1,887.76까지 밀린 지난 13일 거치식으로 주식형 펀드에 2천만원을 넣었다.

김씨는 “지난 8월 급락이후 곧바로 2,000선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펀드 가입 시기를 보아왔다”면서 “지수가 더 빠질수는 있지만 2~3년을 본다면 지금보다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돼 과감하게 펀드를 택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3분기 제조업 광주 ‘흐림’ 전남 ‘맑음’

광주·전남지역의 3·4분기 제조업 업황이 전 분기에 비해 광주는 위축됐으나 전남은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 3·4분기 광주·전남의 제조업 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생산량, 수출, 건설 발주액, 소비 등이 전 분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러나 실업률이 2·4분기 4.1%에서 3.8%로 낮아져 고용상황은 다소 개선됐다.

반면 전남의 생산량은 2·4분기에 전 분기 대비 1.5% 늘어난데 이어 3·4분기에는 4.0% 증가했고 수출액도 2·4분기 50억9천만 달러, 3·4분기 60억2천만 달러 등으로 증가했다.

또 건설 발주액은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3.8% 감소에서 3·4분기에는 26.9% 증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상의 후임 회장 오늘 합의 추대 조율

광주상공회의소는 19일 상임의원회를 열어 제 19대 후임회장 합의추대를 위한 조율을 시도한다. 광주상의는 지난 12일 열린 임시의원총회에서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나, 후보자인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직무대행과 이승기 상임의원간 조정이 되지않아 후임회장 선출에 실패했다. /이종태기자 jtlee@

‘남양휴튼’ 광주 봉선동에 315세대 분양

남양건설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봉선2차 남양휴튼’아파트 315세대를 분양한다.

‘봉선2차 남양휴튼’은 광주지역 최초의 32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4개동 315세대(148.78㎡~302.97㎡) 규모로 공급된다. 단지 인근에 광주를 대표하는 학군과 학원가가 밀집돼 있으며, 남구청과 종합문화예술회관, E-마트, 롯데슈퍼 등이 있다.

단지 내에는 ‘녹지 데크’ 설계를 통해 2층 높이의 데크 위로 조경공간이 꾸며진다. 또 ▲첨단 구조설계 기법 ▲야간경관 조명 ▲24층 높이의 하늘공원 등이 조성된다. 세대별 인테리어 컨셉을 채택했고, 무인경비 및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이 갖춰진다. 문의 062-385-0000. /최경호기자 choice@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광주신세계가 18일 밤 백화점 정문 야외 정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진 가운데 길가던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다. 3만여개의 전구가 연출하는 다양한 트리 불빛이 성큼 다가온 연말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은행 내일 창립 39돌 … 정태석 은행장 인터뷰

“2015년 총자산 50조원 초우량 지역은행 되겠다”

광주은행이 20일로 창립 39주년을 맞는다. 1968년 1억5천만원의 자본금과 직원 50명으로 출발한 광주은행은 현재 128개 점포와 1천5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은행으로 성장했다.

특히 정태석 은행장(사진) 취임 이후 광주은행의 미래 로드맵인 ‘비전 2015’를 통해 독자생존과 독립경영의 틀을 마련했고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도 초우량 지역은행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는 비전 2015의 1단계 재무목표인 총자산 17조원, 세전이익 1천700억원 달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 올해는 재임 첫해이자 광주은행 창립 39주년이다. 소감이 있다면.

▲치열한 금융경쟁 속에서도 광주은행이 고객의 강한 신뢰를 갖는 은행으로 자리잡게 돼 기쁘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3월부터 3년 임기의 광주은행장직을 다시 수행하게 됐다. 모두 지역민과 고객의 한결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스스로를 갈고 닦아 고객과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초우량 지역은행이 되겠다.

- 2004년 선포한 ‘비전 2015’의 성과를 단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첫번째 재무목표가 나타나는 해이다. 어느정도 이루어졌는가.

▲3년전인 2004년 창립기념일에 선포한 것이 바로 비전 2015다. 광주은행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로드맵이다. 1단계 목표로 2007년 총자산 17조원, 세전이익 1천700억원 달성을 제시했다. 이어 2011년 총자산 30조원, 세전이익 3천억원 달성, 2015년 총자산 50조원, 세전이익 5천억원을 달성해 최고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갖춘 은행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수익성·안전성 갖춰 지역민과 함께 윈-윈 경쟁력 강화시킬 것”

우선 첫번째 목표는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총자산은 18조3천억원(수익증권 포함), 세전이익은 1천582억원으로 2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목표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 목표달성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또 2·3차 목표달성을 위해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둘 것인가.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직무교육 연수에 잘 따라주었고, 직원 개개인의 금융전문지식 습득으로 생긴 자신감이 영업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것 같다. 수익증권·신용카드 등 비이자수익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업력 강화도 목표달성에 큰 힘이 됐다.

2·3단계 목표달성을 위해 앞으로는 세계적인 금융 트렌드에 맞춰 비이자수익부문의 수익증가와 함께 자금운용 부문에도 영업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권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지역금융의 동반자로 생존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지적자본 측정 및 평가를 통해 미래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적자본이란 미래에 조직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잠재적 지식을 말한다. 이를위해 광주은행의 인적자본, 내부구조자본, 관계자본 등 지적자본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효율을 최대한 살려 미래비전 달성에 매진하겠다.

광주VISA카드는 물론 여수엑스포유치통장 등 지역색을 가진 지역특화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고객과 지역이 모두 혜택을 보는 ‘윈-윈’전략을 세운다면 지역은행으로서 경쟁력은 충분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융소외계층 ‘맞춤정보’ 한곳서 클릭

정부, 소액대출 등 홈피 게재

재정경제부는 18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 모은 수첩과 PDF 파일을 제작해 전국의 신용회복상담소와 구청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www.mofe.go.kr)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수첩과 파일은 각종 신용회복 제도와 파산 및 면책, 환승론·이지론,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담보 소액대출, 소상공인 신용보증, 이자반환 청구, 대출금리 인하 요구방법 등을 담았다. 또 전화사기(보이스 피싱) 예방법과 사금융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 은행수수료 절약 노하우, 유사금융 선별요령 등의 정보도 실었다. /연합뉴스